



(...2 페이지에 이어) 남는다. '광해'에 이병헌 씨의 터미가 나왔다. 그런데 그제 터미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특수분장사는 관객이 속아주면 성공한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 관찰력과 감각이 필요한 직업

-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따로 과정은 없다. 그러나 손재주와 기계적 감각, 미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직업이다. 또 사물에 대한 관찰력도

필요하다. 정밀한 작업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중 해놓고 다 했다고 하기보다는 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더 섬세하게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 특수분장사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

“직접 촬영 현장에 나가는 직업이다 보니 옛날에는 촬영 나가면 연속해서 밤을 새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엔 영화 현장도 주5일 근무를 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면서 처우는 좋아지고

▲ 셸의 특수분장을 받은 영화 '암살'때의 배우 이정재./셸 제공

다. '테크니컬 아트 스튜디오 셸' 내부적으로는 주5일 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 야간작업은 되도록 안 하는 거로 하고 있다.”

- 특수분장사로서 고충이 있다면.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가짜인 게 티나지 않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내는 게 항상 고충인 것 같다.”



◇ CG와 협업하는 특수분장

- 최근 한국 CG(컴퓨터 그래픽스)가 많이 발전했는데, 특수분장과 CG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요즘은 CG가 많이 발전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다. 대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간

▲ 셸이 만든 영화 '미스터 고'의 고릴라./셸 제공

다. 특수분장과 CG가 다른 점이 있다기보다는 특수분장과 CG는 협업하는 관계다. 특수분장 팀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CG를 이용한다든지 몇몇 것에서는 특수분장 팀이 만든 제작물을 쓰고 다른 부분에선 CG를 이용하는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릴라 얼굴을 만든다고 해보자. 고릴라의 생김새, 색깔, 털 질감 이런 것들을 이발로그 특수분장으로 해서 만든다. 그런데 고릴라 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웃는 표정이나, 찡그린 표정 등 이런 것들은 특수분장, 애니메트로닉스로도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CG를 사용한다. 덕분에 옛날에는 '한국 기술로는 아직 안돼'라고 했던 것들도 이제는 할리우드 못지않게 가능해진 부분이 많다.”

- 특수분장과 특수분장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개인적으로 전망은 좋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영상물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고 제작환경도 더 좋아지고 있다. 또 옛날엔 특수분장은 대부분 영화에서만 했다. 방송 3사엔 심의가 있어 잔인한 장면이나 수술장면 등은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넷플릭스 등 영상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특수분장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

- 도전해보고 싶은 특수분장이 있다면.

“영화 '헬보이'나 '판의 미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 형태를 벗어난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전에는 없던 캐릭터,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특수분장에 있어 끊임없이 연구하는 팀이 되고 싶다. 또 '셸이 한 작업은 진짜같더라', '영화 볼 때 가짜인지 몰랐다' 등의 말을 듣는 특수분장 팀이 되고 싶다.”



▲ 영화 '광해'에서 나온 배우 이병헌 인형 (dummy)/셸 제공



▲ 셸이 특수분장 한 '부산행' 쯤비./셸 제공

(...1 페이지에 이어)

여성은 911에 전화를 걸어 “자전거용 헬멧을 쓴 흑인 (African American) 남성이 나와 내 강아지를 녹화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그의 강아지는 목줄에 매달려 바둥거리는 모습이 잡혔다.

쿠파씨는 여성이 자신에게 사대질을 하고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영

상에 담았다.

이 영상은 지난 주말 미국 인터넷을 강타했고, 네티즌들은 이 여성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의 '신상털이'에 나섰고 미국 투자회사 프랭클린 램플턴에 다닌다는 걸 찾아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여성

은 뒤늦게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이 여성은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려 했던 게 아니다”고 CNN에 해명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프랭클린 램플턴은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서 이 여성을 해고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Corinne Wiebe T. 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

Arbor Memorial